

봉하마을과 정토원은 지금...

# 일상으로 돌아가도 추모물결 여전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로 깊은 슬픔에 잠겼던 봉하마을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6월 4일, 추모 인파가 수백 미터를 줄지어 기다리던 마을 어귀에는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현수막들만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길 양 가장자리에 세워졌던 만장 2000여 개도 수거됐다. 고인에게 마지막 작별인사와 헌화를 하고자 기다리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분향소에는 뒤늦게 조문을 온 수십여 명이 모여 있을 뿐이다.



봉하 정토원에 마련된 노무현 前 대통령 분향소에 참여하는 시민들.

봉하마을에 마련된 노무현 前 대통령 분향소에 참여한 시민들이 있다. 봉하마을에 마련된 노무현 前 대통령 분향소에 참여한 시민들이 있다. 봉하마을에 마련된 노무현 前 대통령 분향소에 참여한 시민들이 있다.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로 깊은 슬픔에 잠겼던 봉하마을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6월 4일, 추모 인파가 수백 미터를 줄지어 기다리던 마을 어귀에는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현수막들만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길 양 가장자리에 세워졌던 만장 2000여 개도 수거됐다. 고인에게 마지막 작별인사와 헌화를 하고자 기다리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분향소에는 뒤늦게 조문을 온 수십여 명이 모여 있을 뿐이다.

에야 서울로 돌아갔다. 노 前대통령의 유골이 안치된 정토원에는 검은 상복 대신 등산복과 평상복을 입은 추모객들이 늘어났다. 오후 5-6시 퇴근 시간 무렵 봉화산 등산로와 봉하마을, 정토원에 이르는 코스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흘러오던 자원봉사자들도 쉴 틈 없이 들어왔다. 추모기간 동안 큰 힘이 돼주던 봉사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

한 자원봉사자는 "먼 길 온 산문객들에게 여전히 매일 세 끼씩 밥과 빵, 물 등을 무료 공양해드리는데 추모객이 끊이지 않으니 자원봉사 일손이 부족해서 계속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과 정토원 신도로 구성된 봉사단 및 스님 봉사단, 노무현 정부 시절 핵심 측근 및 명만 남아 정토원을 지키고 있다.

## “정토원 내에 작은 추모각 지을 생각”

정토원장 선진규 법사



노 前대통령 서거 10여 일 만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정토원장 선진규 법사(사진)를 만났다. 오랜 지기를 먼저 보내는 슬픔과 그간 누적된 피로로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선 법사는 지금도 눈 감으면 어린 시절의 노 前대통령이 절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아른거려 그분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다. “노 前대통령에게 정토원과 봉화산은 몸과 마음이 자란 고향이고, 사자 바위는 ‘부처님바위’라 불릴 정도로 정기가 좋으니, 그분이 산의 좋은 기운을 독자처럼 다시 없을 훌륭한 분으로 성장했다”며 고인을 회상했다.

선 법사는 이어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서 틈틈이 찾아오다가 임기가 끝난 후에는 매일 올라오고, 멀리서 손님이 오면 모시고 다니면서 봉화산 자랑을 하고 다닐 만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다”고 말했다. 이제 영결식을 모두 마치고, 49재 중 2재를 지낸 선 법사는 “오랜 세월 같은 추억을 많이 간직한 고인이 한 세상 회향하는 이 순간에 내가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49재가 끝날 때까지 정성스레 제를 올린 후, 왕이 세상을 떠나면 100재를 지냈다는 옛 문헌의 기록에 따라 서울에서 나머지 51재를 올리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토원 경내에 작은 추모각을 지어 먼 훗날 노 前대통령을 그리워하며 짙을 찾는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도 조심스럽게 갖고 있다”고 했다. 선 법사는 전국에서 찾아와 추모하고 마음으로 함께해준 전 국민과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거듭 밝혔다.

박지현 기자 hdbp@hanmail.net

## “정부 쇄신” 시국선언 잇따라

불교인권위·기독교교수협 등



6월 5일 조계사에서 열린 노무현 前 대통령 2재에 참석한 한명숙 前 총리와 김병준 前 비서실장.

노 前대통령 서거 이후 MB정부 내각 개편과 대통령 답화 등 정국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종교·학계도 정부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인권위(위원장 진관)는 6월 4일 성명 발표에 이어 9일 서울 조계사에서 ‘제1차 불교계 지도자 108 시국선언’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 공개사과 △법무부장관 등 책임자 처벌 △현 내각 총사퇴 및 야당 포함 거국내각 구성 △6·15 공동선언 및 10·4 평화선언 준수 천명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MB정부는 지난 1여년의 기간동안 민주주의·인권·환경·대북관계 등 모든 문제점이 불거졌고, 정치보복으로 前대통령까지 죽음에 이르렀다”며 “국민 요구를 수용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회장 김성은)는 6월 3일 ‘최근 남북 긴장고조와 현시국에 대한 입장’ 시국성명서를 통해 “남북관계 악화를 비롯해 시민에 대한 경철 과잉진압 등 현 시국을 등한시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대학교수들의 시국성명발표를 시작으로 민주화쟁 기념일인 10일까지 동국대·연세대·고려대 등 다수의 대학들의 시국선언문 발표와 시국대회가 이어지는 등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정부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 영화제·심포지엄 등 행사 다채

참여불교재가연대 창립 10주년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박동건, 이하 재가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6월 15-16일 오후 7시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는 ‘회원과 함께하는 사랑방 영화제’에서 타카타 요지로 감독의 ‘굿바이’가 상영된다. 우연히 낱판도우미가 된 오케스트라 첼리스트와 베타당 염문사의 이야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추모열기를 되살리고, 동양적 생사관에 대해 조명한다. 20일 오후 2시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종교권력의 시대, 불교의 상상력”을 주제로 종교와 권력의 상관관계, 종교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불교의 새로운 역할이 모색된다.

강인철 한신대 교수, 박맹수 원광대 교수, 백찬홍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교인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각 종교 대표발제를 진행하며, 조계종 종회의원 정범 스님, 조은수 서울대교수,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또 27일 오전 10시 동국대 만해광장에서는 10주년 기념 회원 체육대회가 열린다. 체육대회에는 불교야카데미 리더스포럼 졸업생을 비롯해, 재가연대 회원 및 관계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재가연대는 “지난 1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겠다”며 “사회에 신뢰받는 청정교단이 되도록 비판과 자원을 아끼지 않고 인재 양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민원즉심관 임용 취소하라”

종교평화위, “종교편향 인사 임명 문제”

민원즉심관제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즉심관은 5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이다. 국내 첫 민원즉심관인 전용태 성시화운동본부장의 임명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서영, 손안식은 6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용태 민원즉심관의 임용 취소를 주장했다. 종평위는 “안산시가 당초 마련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현재도 시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민원즉심관을 임명한 것은 법적인 실수”라고 밝혔다. 전용태 장로는 과거 춘천지검장 재직 당시 ‘춘천을 성시화 모델로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인바 있으며, 지난해 6월 27일에는 ‘안산시 성시화를 위한 지도자기도회’에서 “성시화운동을 통해 안산시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인물. 종평위는 이에 대해 “성시화운동 이사장인 전용태 장로는 2009년 천국제성시엑스포 상임준비위원직을 수행하는 등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특정 종교 선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선교단체 이사장의 임용은 종교회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범불교대회대책위는 6월 6-7일 은해사 불교대학에서 ‘종교평화 입파워먼트 과정-종교인권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 세계 평화의 종 타종

종교평화위, “종교편향 인사 임명 문제”



국내 최대 범종인 ‘세계 평화의 종(1만관·사진)’ 타종식이 5월 26일 화천 평화의 종 공원에서 열렸다. 타종식에는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루투대주교와 13개국 19명의 대사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국내 최대 범종제작사인 성중사대표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에서 제작된 ‘세계 평화의 종’은 전 세계 30개국에서 기증된 탄피와 종을 녹여 제작한 무게 37.5t, 직경 2.76m, 높이 4.67m의 범종이다. 김성우 기자

## “개발원칙 따른 보도 행태 정정”

지울 스님, 언론 보도 비판

천성산 피해액을 172배 부풀린 각 언론사의 확대 오보들에 대한 정정을 이끌어 낸 지울 스님이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를 공식 비판했다. 지울 스님은 6월 5일 총무원 1층 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언론중재위를 통해 조선, 중앙, 문화일보로부터 정정 및 사과 결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2조5000억이라는 손실보도를 145억으로 정정하는 데 2년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 수치가 정정되더라도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울 스님은 대법원의 천성산 공사 관련 재판과 별개로, 145억에서 2조5000억으로 손실액을 부풀린 각 언론사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해왔다. 이미 일부 언론은 정정보도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 지울 스님 유죄판결이 나자 이를 다루며 다시금 오보한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의 ‘환경운동의 내리막 길은 천성산에서 시작했다’ 사실을



주요 일간지의 천성산 터널공사 관련 오보를 설명하는 지울 스님.

비롯해 유력 일간지들은 환경운동의 약영향과 쇠퇴 등을 집중 기사화한 바 있다. 지울 스님은 판결 당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유명 일간지들이 일제히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판결문을 본 후 오도된 기사들을 바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울 스님은 “법원에 계류 중인 조선, 중앙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환경운동 폄하와 개발원칙에 의한 보도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천년동안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계신 은진미륵 (보물 제 218호)

# 미륵성지 기도영험도량

# 은진미륵 관측사로 초대합니다

**일천년 동안 한 곳에 서서, 수많은 중생들을 안아준 은진미륵!**

은진미륵은 서기 688년 조성을 시작하여 장장 38년간 불사를 진행, 서기 1006년 (목종 9년) 완성하였는데 찬란한 서기가 삼철일 동안 천지에 가득하여 찾아오는 사람으로 저자거리를 이룰 만큼 복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진미륵의 백호에서 나오는 황금빛이 너무 밝아 송나라의 지안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예배하고 “마치 훗날을 보는 것 같이 빛나는 미륵불이구나!”하고 감탄했다하여 사찰 이름이 관측사(灌燭寺)로 명명됐다고(관측사사적비명)은 적고 있습니다.

**기축년 윤달 생전 예수재 및 성지순례 안내**

**생전 예수재의 내력과 율력**

부처님의 대공덕주인 ‘범비사라’ 왕은 명부를 체험한 후에 다시 깨어나 전생을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생전 예수재를 무려 59번이나 열어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양무제 역시 매년 봉행하여 인연도리를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관측사에서는 생전 예수재 및 가사 불사를 봉행코저 하오니 나와 조상 그리고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의 발원이 담긴 생전 예수재와 가사불사를 통해 전생, 금생 인연 법문을 듣고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수행하겠다는 율력을 세우시고 기쁘고 임으시길 바랍니다.

- 생전 예수재
  - 기도입재 : 2009년 6월 5일 (음, 5월 13일) / 천도재 봉행 : 매주 목요일 대웅보전 오전 10시 30분
  - 기도회향 : 2009년 7월 23일 (음, 6월 2일) / 동참금 : 예수재 1인 5만원 / 가사불사 성의껏 동참
- 성지순례
  - 일 정 : 2009년 6월 30일 (음 5월 8일) / · 순례사찰 :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 출발장소 : 관측사 주차장 오전 7시 / · 동 참 금 : 1인 3만원 (점심 제공)
  - 입금계좌 : 우체국 310086-01-000089 / 국민은행 453201-04-164635 (예금주 : 관측사)
- 1029일 영가 천도 12번째 회향
  - 기도일정 : 2009년 6월 7일 (음, 5월 15일)
- 2009년 수능 100일 기도 입재
  - 2009년 8월 4일 (음, 6월 14일)

\* 관측사 은진미륵 부처님께 좋은 성적 성취 발원 수능 기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대중스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축원 및 기도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산 관측사 충남 논산시 관측동 254번지 ☎ 041)736-5700~2 / 팩스 041)733-4169